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15)(11/24/2022)

제 4 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

성찬의 의미

요 6:51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 11: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전 11:24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 6:56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토마스 아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다양한 경건의 훈련과 영적 실천을 성경에 근거하여 제안하고 권고하였는데, 제 4 권에서는 성찬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의 훈련을 연결시켰다. 성찬과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리고 성찬과 기도와 경건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찬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첫째,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징표가 된다. **요 6:51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참된 생명을 주는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듯이, 성찬 역시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 어떤 영적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찬미하게 한다. 성찬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 구속됨의 감격,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찬식을 계속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성찬은 권유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씀과 성례전은 교회의 표지(Marks)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례전이 거행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믿는 자의 의무인 성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징표이자,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게 하는 은혜의 매개체이다.

둘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한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마 11:28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구원 받음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과 함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한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요 14:27 -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며,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 죄의 짐,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짐, 세상살이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의 짐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역사, 해결받는 역사, 자유를 얻는

역사를 경험한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자리,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사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자리가 된다.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깊은 평안과 안식,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심을 누린다.

셋째, 성찬의 자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주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이다. **고전 11:24 -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주님은 기념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념한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

넷째,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시킨다. **요 6:56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요 15 장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의 안에 거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셨다. **요 15:4 -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신비를 경험한다. 예수님은 이에 더해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사람 역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몸에 흡수되어 그 음식이 몸이 되듯이, 주님은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고 완전한 연합을 우리는 신비를 알게 하셨다.

이러한 성찬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 성찬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더욱 성찰하고 회개하며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 모든 영적 활동이 곧 경건의 훈련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경건의 훈련과 긴밀히 관계를 가진다. 성찬의 성경적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실천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성찬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에 담아두신 의미대로 온전히 실천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최아브라함(파키스탄), 태일(이란, 터키), 하영광(인도네시아), 홍리브가(말레이시아), 흥패밀리(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속한 커네티컷주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